

생각 나누기 서투른 멸치잡이 배 선원

며칠간 낮동안 햇빛이 여름의 그것처럼 따사로우며 서남 해역 작은 섬 추자도에서 근무하던 시절 선원 부족으로 찢찢매는 어민들의 멸치잡이에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추자도는 예로부터 멸치잡이로 유명한 곳이다. 멸치잡이는 여름 한 철, 그것도 야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근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쁜 일손을 도우려 여유롭게 승선했다. 멸치잡이 일은 8명 이상이 팀워크를 이뤄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출어를 할 수 없다. 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총 동원됐기에 멸치잡이 철이 되면 서투른 이틀 데 없는 나에게도 승선

요청이 왔다. 퇴근 후 밤에 잠 몇 시간 덜 자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승선했다. 일은 서투르도 성실한 선원으로 소문나 선주들이 선호하는 인기 선원이었다. 집어등 불빛을 본 멸치 떼가 모여들고 대형 포충망처럼 생긴 그물이 바다에 내려지면 이물 사공(배의 앞머리 부분에서 집어등 잡이)은 집어등을 그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멸치 떼를 그물 안으로 유도한다. 그물 사공들은 잽싸게 그물을 조이고, 조여진

그물은 시소처럼 걸쳐진 첩대를 눌러서 그물을 들어 올리게 된다. 내가 맡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첩대 사공이다.

조업이 끝나면 배가 물양장에 정박하고 이어 분배가 시작된다. 분배방식도 독특하다. 처음에는 큰 그릇으로 분배를 하다가 양이 줄어들면 점점 작은 그릇으로 바뀐다. 원시적인 분배 방법이지만 대단히 공정하다. 모두가 '승복'할 분배방식이다.

지금 생각하면 미련이였지만 여려해 동안 선원이 부족한 시기에 멸치배 예비 선원 생활로 어민들의 어획고를 올리는 데 보탬을 주었던 추억이

지금도 아련하다.

당시에는 꽤나 고된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즐거웠던 시절'이다.

이제는 그때처럼 젊지도, 추자도처럼 급히 사람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버릇처럼 지역사회에 부족한 예비 선원 역할처럼 봉사할 곳이 있을까 돌아본다. 지금의 상황과 내 모양대로 필요한 나의 쓰임새를 여전히 기대해 본다.

김일태 육군 대위로 전역해 해군에서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했으며, 해병대에서 정년퇴직했다.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따뜻한 글을 쓰고 있다.

이달의 나라사랑 영상 콘텐츠

보물찾기, 생전 안장 심의편



국가보훈처는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전 안장 심의 대상과 신청방법, 심의내용과 안장방법까지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원주보훈요양원



지난해 12월 강원권 유일의 보훈복지시설인 원주보훈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져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제2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전시회, '여자들, 역사가 되다'



지난 3월 학교재갤러리에서는 윤석남 화가의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과 함께 윤석남 화가의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츄더 뮤직비디오-리멤버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노래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장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

빈칸에 답을 채운 후 본인의 주소, 원하는 상품, 전화번호(필수, 상품 택배 발송용)와 함께 매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매월 6명을 추첨해 건강식품(5명), 보청기(1명)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E-mail edit@narasarang.kr Fax 044)866-6771



정관장 홍삼원(5명)



버나폰보청기(1명)
보훈보청기(02-749-7995) 제공

■ 지난호(911호) 정답과 당첨자

보청기 △충남 당진시 백종덕
건강식품 △강원 강릉시 최중배 △서울 마포구 심영선 △경기 성남시 김원기 △대전 서구 이재욱 △부산 사상구 정재홍

충	무	공		
	궁		한	량
전	화	위	복	
망		원		영
대		장	난	감

- 가로** 1 한없이 넓게 펼쳐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망○대○.
4 시력이 나쁜 사람은 이것을 써야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에게 돋보기○○이 필수입니다.
5 그 고장 사람이 아닌 외부인을 이르는 말. 박목월 시인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
7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 낫다'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 세로** 2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물건. ○○경.
3 해가 막 솟아오르는 모습. 새해나 특별한 때 동해로 이것을 보러갑니다. ○돋○.
4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보려면 옥상이나 지붕에 '이것'을 세워야 했습니다.
6 흑갈색에 몸이 길고 다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한방약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
8 겨울에 방 안의 천장이나 벽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찬 기운. ○풍.

■ 912호 문제

